

보도시점 2026. 9. 5.(토) 조간 < 2026. 9. 4.(금) 19:00 >

중기부,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K-중소·스타트업 AI 혁신 전략」 로드맵 제시

- 창업벤처혁신실장, 9.4(목) 중국에서 열린 제32차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석
- 20개 회원 경제체에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 주제 발표 및 공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현지시간 9월 4일(금)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20개 회원 경제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21개 경제체의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중소기업 협력방안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혁신이 발전을 이끌고, 협력이 번영을 실현한다”는 주제로 ① 과학·기술 혁신, ② 디지털·지능화 역량 강화, ③ 포용적 발전의 3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중점과제 >

- 의제(Agenda) : “혁신이 발전을 이끌고, 협력이 번영을 실현한다”
“Innovation Drives Progress, Partnership Delivers Prosperity”
- 중점과제(Priorities) : ▲과학·기술 혁신(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디지털·지능화 역량 강화(Digital and Intelligent Empowerment)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

<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요 일정 >

- **일시/장소** : '26.9.4(금) 09:25~16:50(현지시간), 중국 광저우 샹그릴라호텔(1층)
- **일정** : 개회 및 의제 채택 → 중점과제 토론(오전 : 과학·기술 혁신, 오후 : 디지털·지능화 역량 강화, 포용적 발전)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디지털·지능화 역량 강화 세션에서 인공지능(이하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20개 회원 경제체에 공유하고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 제조업 인공지능전환(이하 AX)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 및 AI 솔루션 자동화 전문기업 육성, ② 지방 및 소상공인 AX를 위한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교육, ③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딥테크 AI 펀드 조성 및 중소기업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④ AI 보급·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AI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중소·벤처기업 4대 AI 핵심 정책이다.

< 한국의 중소·스타트업 AI 정책 주제 발표 핵심내용 >

제조업 AX	지역·소상공인 AX	AI 스타트업 지원	AI 보급·확산
■ AI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 ■ 제조 AI 전문기업 육성	■ 지역 AI 대전환 ■ 소상공인 AI 교육	■ 딥테크 AI 펀드 조성 ■ 중소기업 전용 GPU 확보	■ SMEs AI 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류와 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소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고종현	(044-204-7553)
	중소기업인공지능 확산추진단	책임자	주무관	전태현	(044-204-7551)
			과 장	곽재경	(044-204-7250)
		담당자	주무관	최현준	(044-204-7244)